

조선시대 타임캡슐 '이재난고' 250년만에 귀향

실학자 황윤석이 기록한 백과전서 후손이 목판 100점 고창군에 기증
현존 일기류 기록 중 최대 자료



'이재난고'는 대실학자 황윤석이 열 살 때부터 작고하기 이틀 전까지 53년 동안 조선 시대의 온갖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류 기록이다.

이재의 수고본 2책을 더해 62책으로 기술됐다. 이 가운데 47책의 일기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활자화 해 이재난고 9책으로 발간해 후학들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일기만도 4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62책 전체 분량은 약 530만 자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재난고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황윤석이 보고, 익히고, 생각한 모든 것을 매일 기록하고 그

의 연구 결과까지 정리한 과학자의 연구 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치, 경제, 과학, 역사, 사회, 문화, 언어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이재난고에 담았다. 특히 이재난고에는 양반 지식인의 살아온 궤적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자세하게는 당시 쌀값, 국밥, 고기 따위의 물가 변동까지도 기록돼 있다. 그는 여행하면서 마을

이름을 한자와 한글로 나란히 적어 놓았고, 식물, 광물, 기물 따위도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다.

또 강원도 춘천에 있던 선대 묘소를 이장할 때 이를 발굴보고서로 기록하고 고려 시대 묘제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이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충청도 진천과 경상도 상주에서 호랑이로 인한 피해 상황과 호랑이 사냥 관련 현상금(큰놈 100냥, 중간놈 50냥, 작은놈 30냥)을 통해 하루 사이에 20여 마리를 잡았다는 내용과 1768년(영조 44) 7월에 과거시험을 본 날 점심으로 일행과 냉면을 시켜 먹은 내용 등 당시 생활상이 잘 담겨 '조선시대 타임캡슐'이라 불릴 만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재난고는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부터 수학, 과학, 천문, 지리, 어학, 역법 및 신문물인 서양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백과전서(百科全書)처럼 망라한 사료"라며 "다른 일기와 차이가 크며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재난고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승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홍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왕정공원 일원에 도심근린형 숲속 야영장 조성



남원시는 시민의 힐링 공간인 왕정공원 일원에 '도심근린형 숲속야영장' (조감도)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숲속야영장은 남원시 산곡동 산13번지 일원 2.8ha에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입된다.

시는 교통산국민관광지 주차장 주변의 사유지에 기존 소나무 숲을 활용한 숲속야영장(글램핑 돔, 데크사이트, 쉼터사이트)과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데크산책로, 숲속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 26일 숲속야영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산 둘레길과 산림욕장 조성, 교통산 활성화사업 등 교통산의 건강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수소자동차 지원 확대 65억원 소진까지 무제한으로

익산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65억원을 편성해 수소자동차 180대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수소자동차 구매 보급기준 가운데 구매 대수를 개인당 1대, 법인·단체당 2대 제한을 없애고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은 1대당 36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지역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단체다. 수소차 관련 재공고·지원은 오는 5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수소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판매사를 방문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12억원을 투입해 관용차로 활용할 친환경 자동차로 17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석안동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치유농장 시설비 지원 순창군 농가 8곳 모집

순창군이 지역내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오는 30일까지 우수체험농장과 치유체험농장 등 농가 8곳을 모집한다.

우수체험농장 육성사업은 스타팜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 치유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증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지는 관내 교육농장과 스타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 후 품질인증을 완료할 경우 농가당 500만원의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농촌진흥청 교육농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타팜 농가로 둘 중 하나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치유체험 양성과 사업은 농지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체험장으로서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합법화 되도록 시설보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 농가당 572만원을 지원되며 자부담 30%를 부담해야 된다.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9@

정읍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민안전 '업 로드'

수성동·장명동 등 원도심 중심

화재감지기·안심비상벨 등 설치

정읍시가 화재와 범죄는 물론 시민의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도시형 스마트기술을 도입한다.

정읍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러 내년 4월까지 시비 2억3000만원을 포함 총 7억7000만원을 들여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업내용은 ▲화재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

고되는 스마트 화재감지기 310대 설치 ▲범죄에 방설계기법이 적용된 범죄취약지역 안심비상벨 36개소 설치 ▲냉난방 및 공기정정이 가능한 스마트버스터류장 조성 ▲주차대수 확인과 모바일결제 가능한 스마트주차장 시스템 설치 등이다.

화재 및 범죄예방과 화재·혹한기 시민 건강 보호, 주차장 이용 편의 등을 향상시켜 공공영역에서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낙후된 원도심에 안전·소방·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대상 지역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범죄예방설계기법이 적용된 스마트 안심비상벨.

군산시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먹거리 안전성 높인다

하반기부터...매뉴얼·로드맵도 마련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며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의 안전성관리 체계를 정착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목별 매뉴얼, 체계적인 생산·유통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해 가기로 했다.

신동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은 "군산 로컬푸드 통합인증 시스템을 본격 실행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군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해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있는 먹거리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기성 기자 nogus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용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